전북 지역 근대문예단체 연구

최 명 표 (전북대)

< 목 차 >

1. 서론
2. 근대문예단체의 출현 과정
3.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전북 지역에 근대적 성격을 갖춘 문예단체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탄생 후의 활약상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 문예단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시회는 지역 유림들의 친목 도모와 한문 소양의 과시를 위한 장이었다. 전북 지역의 시회는 신라 말에 태산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로 조선시대에 들어서 유생들에 의한 시회는 도처에서 열렸다. 도내의 시회는 지역 유지들에 의한 자발적 모임, 지역 관료가 주도한 모임, 개인이 연 모임 등으로 나뉜다.

시회라는 명칭은 일본 유학생에 의해 주도된 '전주시회'에서 보듯이, 근대적 문예단체의 이름으로도 차용되었다. 시회는 문예강연회를 통해서 근대문학의 실체를 선전하여 전북 지역에 근대문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다른 유학생들도 각 지역에서 문예단체를 조직하고 근대문예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지역의 청년과 소년들에게 문학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근대문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이었다.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곳은 전주, 군산, 이리, 줄포 등이었다. 문예단체의 노력은 주로 소인극, 즉 아마추어 연극의 상연에 집중되었으나, 작품합평회를 열거나 기관지를 발행하여 문예적 소양을 기르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청년들의 문예 활동에 자극

www.kci.go.kr

받은 소년문사들도 문예단체를 출범시키며 문예운동에 가담하여 전북 근대문학의 밑거름이 되었다.

주제어 : 시회, 문예단체, 전라북도, 근대문학, 문예운동

1. 서론

조선은 시의 나라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각 지역마다 시를 짓고 읊는 문화가 만연했다. 오죽하면 나라의 벼슬아치를 선발하는 시험조차 시작으로 대체할 정도였으니, 조선에 시회(詩會, poetry party)가 상설되었다손 놀랄 일이 아니다. 시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이문회(以文會)가 있다. 이문회는 『논어』의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君子以文會友(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은다)"는 가르침을 앞세워 유교적 생을 실천하려는 집단이었다. 곧, 시회나 이문회는 유자들이 만든 글모임이다. 시회는 조선 초에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안평대군이 담담정(淡淡亭)을 짓고 유생들을 모아 시회를 베풀었던 예에서 보듯이, 주재자를 중심으로 정치적 신념이 엇비슷한 무리들끼리 상종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특히 지방에서는 수령과 유생들이 어울려 판을 벌였거니와 시회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유교가 태생부터 국가경영에 참여하기를 권장해서 생겨난 현상으로, 유생들로서는 거리낌없이 시회에 참가하는 준거가 되었다. 그에 따라 시회는 유생들을 견인하여 동류의식을 공유하고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공간으로 널리 승인되었다.

시라는 용어가 한시에 한정되어 사용된 까닭에, 조선 초에는 시회의 참여자가 한문 해독이 가능한 유생들로 한정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세력이 커진 중인들까지 시회를 열게 될 정도로 대중화되자, 시회는 저마다 일정한 규약을 정하고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타성

www.kci.go.kr

을 강화했다. 그로 인해 시회는 시사(詩社), 음사(吟社), 시맹(詩盟) 등의 여러 명칭을 거느렸다. 대한제국기에는 익산군수를 지낸 오횡묵이 평민들과 함께 칠송정시사(七松亭詩社)를 조직하고 격의없이 시문을 수작할 정도로 시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면서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며 은성하였다. 또 시회는 매화의 개화기마다 도처에서 열렸던 '매사(梅社)'[1]처럼, 회원 간의 상사한 취미를 연결고리로 열리기도 했다.

시회는 일제에게 주권을 늑탈당한 뒤로는 그들에게 억류되었다. 1911년 말에 일제는 박영효, 이완용, 김윤식, 박제순, 조응중, 민병석, 이용직 등을 앞세워 이문회를 출범시켰다. 회의 목적은 '일선인이 상화(相和)ᄒᆞ야 경학을 강구(講究)ᄒᆞ고 시문을 연구ᄒᆞᆷ'에 두었으며, 박제순을 회두로 삼고 윤치오와 정병조 등을 간사로 선출하여 이듬해 1월 7일 제1회 시회를 열었다.[2] 테라우치 총독이 명예회원으로 300원을 후원할 정도였으니, 친일관료와 유지들을 망라한 관변 시회에 기울인 일제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을 회우 2인의 소개로 매년 회비 3원을 납부하는 자[3]로 한정한 바와 같이, 일제는 식민지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선민의식을 배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식민정책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했다. 회에서는 춘추 2회의 시회를 열었으며, 1912년 5월 기관지 『이문회지』 제1집 이후로 죽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했다.[4] 이문회에 대한 총독부의 관심은 1921년 새해에 정무총감 관저(聞香閣)에서 시회를 열 정도로 각별하였다. 시회는 사이토 총독이 '문향'을 내놓자 정무총감이 한시를 쓰고, 그 뒤를 이어 정만조와 김규진 등이 잇따라 차운의 시를 지었다.[5] 총독의 관심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박영효가 회두로 있던 1928년에도 야마나시 총독이 시회를 주최할 정도였다.[6]

서울의 경우와 달리 전통적 시회의 일종으로서 이문회는 황해도 해주의

1) 신익철, 『조선의 매화시를 읽다』, 글항아리, 2015, 216면.
2) 『매일신보』, 1912. 1. 10.
3) 『매일신보』, 1915. 1. 23.
4) 『매일신보』, 1912. 5. 7.
5) 『매일신보』, 1921. 1. 11.
6) 『매일신보』, 1928. 4. 20.

www.kci.go.kr

이문회[7], 전남 화순의 이문회[8] 등에서 보듯, 각 지역에 두루 조직되었다. 지역에서는 환경에 따라 이문회가 계몽단체로 성격을 쇄신하기도 했다. 전북 태인의 송직상(宋直相)은 1920년 6월 27일 태인청년회 창립총회에서 '이문회우(以文會友)'를 주제로 강연하였다.[9] 평북 초산의 이문회는 '초산구락부'로 개명하여 지역운동을 선도하였고[10], 전북 전주군 봉동면의 이문회도 지역사회의 계몽사업을 내세웠다.[11] 한편 이문회라는 명칭은 사립이화학당에서 개최한 '이화 이문회' 창립 21주년 기념식[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학교의 근대적 문예단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시회와 이문회는 한국 근대문예단체의 전사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문학장은 문학과 정치의 접점에서 발생한다[13]는 점에서 시회에 함의된 바는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전라북도에 근대 문예단체가 출현하기에 앞서 존재한 시회나 백일장 등을 살피고, 각 지역에 생겨난 문예단체를 조감하고자 한다. 그로써 한국문학의 연속성이 확인될 것이고, 도내에 근대문단이 형성되는 물질적 지반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다만 필자가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14] 서울에 비하여 근대

---

7) 『매일신보』, 1914. 7. 15.
8) 『매일신보』, 1926. 10. 4.
9) 『동아일보』, 1920. 7. 2.
10) 『동아일보』, 1927. 1. 26.
11) 1921년 10월 24일 창립한 봉동 이문회의 임원진은 회장 한경문(韓京文), 부회장 김연(金演), 덕육부장 이춘보(李春甫), 체육부장 이규남(李圭南), 실업부장 겸 평의원 유봉춘(柳逢春), 평의원 김공진(金共珍)·최형식(崔炯植)·김유현(金柳賢), 회계 김상집(金翔集), 서기 노순석(魯順石)·이재구(李在九) 등이었다.(『동아일보』, 1921. 10. 28.)
12) '이화 이문회' 창립 21주년 기념식은 '회가, 기도(金芬玉), 식사, 합창, 바이올닌독주(洪盛裕), 연혁(蔡乙孫), 삼인 합주(全思實, 韓萬福, 安禮娥), 시(金鍾振), 독창(安禮娥) 축사(金允經), 합창, 여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매일신보』, 1925. 11. 20.) 이화학당의 이문회에 관하여 노자영이 「이화학당 이문회를 관ᄒᆞ고 (1-3)」(『매일신보』, 1920. 12. 9-11)를 발표하자, 화언생은 「이화학당 이문회에 대ᄒᆞᆫ 기서를 독ᄒᆞ고 (1-4)」(『매일신보』, 1920. 12. 17~23.)로 반박하였다.
13) Pierre Bourdieu,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79면.

www.kci.go.kr

매체의 발달이 더뎠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문예단체에서 발간했다는 잡지나 기관지 등의 원본을 입수하지 못하여 논의를 윤택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전제하기로 한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후일의 광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요량이다.

2. 근대문예단체의 출현 과정

2.1. 시회의 근대적 성격

전라북도 시회의 기원은 신라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정강왕 1년(887년) 태산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은 태인의 피향정(披香亭) 주위에 가득한 연당에서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포석정처럼 술잔을 돌리며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는 피향정은 보물 제289호로 지정된 정읍 태인의 '호남제일정'이다. 조선조에 하연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그의 문덕을 기렸다는 피향정의 정취에 취한 묵객들도 다수의 시편을 남겼다.[15] 또 전북 지역에서 조선시대의 유명한 시사로는 1665년 기생 매창의 묘비를 세워 준 부안시사가 있다. 이 시사가 지방관료와 향반들의 결사체였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그들의 활약 덕분에 매창의 귀중한 시문이 유실되지 않았다. 그처럼 시회는 지역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耆寧堂)이 있다. 기령당은 유생들이 입사했다가 물러난 뒤에 동류들끼리 시문을 논하던 기로회(耆老會) 혹은 기령회(耆寧會)에 뿌리를 둔 곳이다.[16] 이 모임은 본래

14) 최명표, 「전북 지역 문단의 형성 과정」, 『로컬리티인문학』 1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0, 47-77면; 최명표, 「전북 지역 근대 잡지의 사적 고찰」, 『영주어문』 30, 영주어문학회, 2015. 6, 119-140면.
15) 정훈, 「정읍 피향정 제영시 연구」, 『국어문학』 52, 2012, 85-111면 참조.
16) 전주 외에 진안의 기로회도 확인된다.(『동아일보』, 1934. 9. 1.)

www.kci.go.kr

중국에서 나이가 많아져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룬 것이 고려조에 유입되어 성행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서는 대신들의 사적 모임에 불과했으나, 조선시대에는 기로소(耆老所)라 하여 국가가 제도화하여 운영하였다.[17] 사적에 의하면, 전주의 기령당은 광해군 2년(1610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이다. 예나 지금이나 관서장의 신임인사와 세배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령당은 전주 지역의 경로사상과 함께 유교문화의 잔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기령당이 선비들의 유희장이었던 고로, 회원들은 지금까지 시재를 겨루거나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시회를 열어 왔다. 기령당은 2016년 5월 현재 152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전주시내를 굽어보며 시를 매개로 결사된 전통적 문예단체의 위세를 보여준다.

전북 도내에서 운영된 시회는 주체에 따라 지역 유지들에 의한 자발적 모임, 지역 관료가 주도한 모임, 개인이 연 모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의 유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보기로 1903년 5월 김제에서 결성된 '사원아회(詞苑雅會)'를 들 수 있다.[18] 이 회는 중국 진나라의 '난정수계(蘭亭修契)'와 당나라의 '낙빈연회(洛濱宴會)'를 모방한 것으로, 매 삭에 1회씩 시사를 설하였다. 30여명에 달한 회원들은 고금의 역사를 토론하고 시를 읊조렸다. 회원들은 김제 지역의 관료와 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옥구의 유생들은 최치원이 책을 읽었던 출생지에 '자천대(紫泉臺)'라는 독서대를 건립하고 기념하여 백일장을 열었다.[19] 또 유생들은 이리시조구락부[20]처럼, 시회라

17) 신은경, 「풍류방예술과 풍류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171-208면 참조.

18) "金堤郡 文人 墨客 三十人이 晉代蘭亭修契와 唐世洛濱宴會를 倣하야 詞苑雅會를 結하고 每朔 一次式 計年齒輪回設社하야 杯盤을 盛備ᄒᆞ고 或 討論古今歷史ᄒᆞ며 或 吟詠詞藻風致ᄒᆞ며 或 觴詠 或 酣歌로 湖山에 暢懷ᄒᆞ난ᄃᆡ 湖亭 趙東契, 醉峰 趙達雲, 海石 趙東夏, 玩亭 金圭柏, 曉山 趙東浩, 三坡 趙翰誠, 蘭史 趙周行, 葵庭 趙周泰, 霽山 趙年式, 表園 朴圭完, 九何 金鳳璿, 又儂 趙文誠, 悅雲 趙太憲 諸氏인ᄃᆡ 皆一鄕有名한 風流才士로 泰平勝事를 賁飾한다더라 紙幣加計 昨日 紙幣 加計난 紙幣 每 百元에 白銅貨 白八十四元이더라"(『황성신문』, 1903. 5. 26.)

www.kci.go.kr

는 명칭을 시세에 맞춰 바꾸기도 했다.

지역 유생들이 주도한 시회 중에서 태인의 시회는 유림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백일장을 열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국권을 침탈당한 뒤에는 시회에도 일제의 통제력이 미치게 되었다. 아래의 인용 기사를 볼 양이면, 지역의 시회조차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열 수 있었던 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인의 유생들은 시회를 꾸준히 열어서 문향으로서의 긍지를 배양하고, 문풍을 앙양하려고 노력하였다. 태인은 앞서 살핀 피향정의 소재지이며, 조선시대에 태인본이 발간될 정도로 유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문향이다. 태인에서 열린 시회는 세 번 모두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태인의 시회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재구하기에 적당하다.

> ① 태인군 신ᄉᆞ 류홍렬(劉泓烈) 김슈곤(金守坤) 김영곤(金榮坤) 왕병셥(王秉燮) ᄉᆡ지션(柴在璇) 오씨의 발긔로, 군슈 송태승[21] 분견소쟝 산본현치(山本賢治) 량씨의, 찬셩을 엇어, 거월 이십구일에, 향교 만화루(萬化樓)에셔 시회를 열고 고시원은 부안 박동렬(朴東烈) 정읍 류익상(柳翼相) 고부 리션우(李善羽) 김뎨 고광셥(高光燮) 만경 리모(李某) 등 륙인을 션거ᄒᆞ야 일제히 렬셕ᄒᆞ고, 군슈와 쇼쟝이, 샹좌에 안져, ᄉᆞ률로 츄월(秋月)이라ᄂᆞᆫ 글뎨를 ᄂᆡ여, 입격쟈 일등 일인에 금ᄉᆞ십원, 이등 이인에 금ᄉᆞ십원, 삼등 삼인에 금삽십원, ᄉᆞ등 빅인에 금팔십원을 시샹ᄒᆞ야 문ᄉᆞ의 흥미를 도엇다ᄂᆞᆫᄃᆡ, 그 샹여금 모집은, 입쟝권갑으로, 미일명에 ᄉᆞ십젼식, 슈입ᄒᆞ야, 이것으로 당일 시샹에셔 쓴, 잡비와 입쟝원 뎜심, 입격쟈 상금에, 분비ᄒᆞ얏ᄂᆞᆫᄃᆡ, 입쟝권 슈효ᄂᆞᆫ, 일천일빅ᄉᆞ십칠미오, 관광인은 만여명이라, 이왕 업ᄂᆞᆫ 셩황을 일우엇고, 군슈와 쇼쟝의, 지도로, 고시에 지공무ᄉᆞ케 ᄒᆞ얏다더라[22]

---

19) 당일 백일장의 상시관은 서울 출신 조상설(趙尙卨), 시관은 옥구 임피 출신 채양묵(蔡良默)과 신여동(申汝童)이 맡았다. 시부 특등은 전세린(田世麟), 율부 특등은 이병춘(李秉春)이 뽑혔다.(『매일신보』, 1934. 6. 21.)

20) 『동아일보』, 1931. 6. 7.

21) 송태승(宋泰昇, 1881~?)은 경남 부산 출신으로, 농상공부 기수, 내부 치도국 기사, 태인군수, 김제군수, 전라북도 권업과장 등을 지냈다. 그에 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ㅂ~ㅇ), 민족문제연구소, 2009, 354면 참조.

www.kci.go.kr

② 井邑郡 元泰仁 鄕校 內 莊修齋의 重修 落成을 期하야 一大 白日場을 開催하기로 當地 文士 金仁淑, 宋克重, 柴景玉, 柴在鈺, 柴泰珍, 宋昌彦, 宋道植, 金台坤 氏 等 有志의 發起로 旣히 準備를 進行中이든바 今 十七日부터 三日間 同 鄕校 內 莊修齋에서 設行하게 되엇는데 各地 同好의 士로부터 多數한 投稿가 有할 뿐 아니라 當日은 京城으로서 梅下 崔永年 先生을 邀하야 上試에 當케 할 터이며 附近 詩文大家의 參集이 多數할 터임으로 近來 稀有의 盛況을 致케 하겟다고.[23]

③ 全北 泰仁邑內 鄕校에서는 鄕校를 一新 重修하고 來 二十九日 午前 十時에 鄕校 重修 落成式을 擧行할 터이라는데 同 落成을 紀念키 爲하야 文風振興을 圖키로 白日場을 左記에 依하야 開催한다더라

一. 四律 題 月下 砧 押 深心針尋侵
二. 論 習禮大樹下
三. 詩 孟子戰局之湯武 押 武
四. 賦 復遊赤壁
五. 大小古風 風驅落葉戰秋山
六. 面試 題 當日 有함
七. 場所 全北 泰仁鄕校 萬化樓
八. 期日 十月 二十九日부터 三十日까지
九. 試紙는 接受 卷並 一杖 三十錢
十. 投稿 白紙에 題詩하야 來三十日까지 本 鄕校에 倒着토록 試紙 代金 三十錢을 添付할 일
十一. 一二三等 人員은 新聞紙上에 揭載하고 賞品도 次等 配付함
十二. 考試 當日에는 記者와 監官 參席
十三. 餘興 古樂과 其他

◇賞品
一. 律 一等 一人 二十圓 二等 一人 十圓 三等 一人 五圓 合格者 三十人 紙筆墨
一. 論 一等 一人 十圓 二等 一人 五圓 三等 一人 三圓 合格者 十人 右同
一. 詩 一等 一人 十圓 二等 一人 五圓 三等 一人 三圓 合格者 二十人 右同
一. 賦 一等 一人 十圓 二等 一人 五圓 三等 一人 三圓 合格者 十人 右同
一. 大古風 一等 一人 十圓 二等 一人 五圓 三等 一人 三圓 合格者 二十人

22) 『매일신보』, 1912. 10. 13.
23) 『시대일보』, 1924. 10. 17.

www.kci.go.kr

右同
一. 小古風 一等 一人 五圓 二等 一人 三圓 三等 一人 二圓 合格者 二十人
右同[24]

①은 1912년 10월 태인의 유생들이 연 시회이다. 나라가 망한 뒤라서인지, 시회에는 군수와 같이 일본인 헌병분견소장도 참석하였다. 더욱이 양인의 찬성을 얻어 시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니, 주권의 상실이 가져온 여파가 시회에까지 미친 줄 확인하게 된다. 시회는 참가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아서 소요경비로 충당하였으나, 무려 '관광인은 만여명'이라는 보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시회가 지역민들에게 볼거리의 기능도 수행한 듯하다. ②는 1924년 10월 태인 향교 장수재의 중수를 기념하여 백일장을 열었다는 기사이다. 특이한 점은 참가 숫자를 늘리려고 서울에서 교육자, 언론인, 문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소설가 최찬식의 부친 최영년을 초빙한 것이다. ③은 태인 향교를 중수한 기념으로 1927년 10월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文風振興을 圖키 위하야' 백일장을 개최한다는 기사이다.

태인의 사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보기가 운봉에서 벌어졌다. 1920년 남원 운봉에서는 3형제(전 승지 朴奉圭, 남원군 참사 朴奉珠, 전 참봉 朴仁圭)가 산내면 내정리의 제각 낙성을 기념하여 군내에서 처음으로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백일장은 시, 부, 율, 풍의 네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다. 총경비가 5,000원을 상회할 정도의 성대한 낙성연에는 인근 구례의 오협율사의 흥행과 활동사진의 영사도 있었다. 아울러 명창 송만갑, 유성준, 이화중선의 판소리와 함께 이웃한 함양 기생들의 가야금 공연과 춤이 공연되었다. 연회는 『매일신보』에 '제각 낙성연 순성과 백일장 대성황'이란 제하로 2회에 걸쳐 중계되기도 했다.[25] 이 사례로 미루건대, 시회가 유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

24) 『중외일보』, 1927. 10. 27.

25) 당일의 시관으로는 남원군수 김기홍(金基泓), 부시관 이도봉(李道鳳), 참시관 최병칠(崔秉七)·임병찬(林秉贊)이 위촉되었다. 각 부문의 장원은 시부 한복희(韓福熙)·양재철(梁在澈)·박교열(朴敎烈), 부부 배대암(裵大岩)·한백성(韓百聖)·박병규(朴昞圭), 율부 이강수(李康壽)·공창규(孔昌奎)·양문옥(梁文玉)·김한풍(金漢星), 풍부 안종관(安鍾官)·박홍석(朴洪錫)·박선옥(朴善玉) 등이 뽑혔다.(『매

www.kci.go.kr

축제의 기능까지 감당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성싶다.

이어서 조선시대처럼 도내에는 지방 수령에 의한 시회가 열렸다. 대표적으로 1914년 11월 22일 전라북도 장관 이두황[26]이 전주 유지들과 조직한 완산시회를 들 수 있다. 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설행(設行)하였다. 당시 회장은 김진현[27]이었고, 유두환[28], 정순모[29], 박영철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다.[30] 거론된 인사들이 모두 지역의 고위관료라는 점에서, 도 장관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참석했으리라. 이러한 형태의 시사는 향피제에 따라 무연고 지역으로 부임한 수령들이 재임 기간 동안의 무탈을 담보받는 수단으로 향반들과 어울려 시판을 벌였던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관례를 재연한 것이다. 다. 이두황의 작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익산에는 익산군수로 재직하던 박영철[31]이 주도한 '익산음사'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시사원들은 『매일신보』 1916년 1월 1일과 7일의 2회에 걸쳐 '익산음사'의 명의로 발표한 신년시의 필자로 미루어 보면, 대부분 익산 지방의 관료와 유지들이었다.[32]

일신보』, 1920. 2. 24.; 『매일신보』, 1920. 5. 4.; 『매일신보』, 1920. 6. 6~9.)

26) 이두황(雪岳 李斗璜, 1858~1916)은 서울 출신으로, 1882년 무과에 급제한 뒤 동학군의 토벌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한 공로로 1907년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을 받아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다음, 1908년 1월 전라북도관찰사(1910년 직제 개편으로 초대 전라북도장관)로 부임하여 사망 시까지 재임하였다. 그에 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ㅂ~ㅇ), 민족문제연구소, 2009, 832면 참조.

27) 김진현(金鎭賢, 1868~?)은 1909년 전라북도관찰부 사무관으로 있다가 1912년 고창군수, 1914년 전주군수, 1915년 무주군수 등을 지냈다. 그에 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ㄱ~ㅂ), 민족문제연구소, 2009, 631면 참조.

28) 유두환(柳斗煥, 1883~1930)은 전주 출신으로 1899년 강원도관찰부 주사를 지낸 뒤에, 1912년 전라북도 참사로 부임하여 그해 9월 메이지 일왕 장례식 '참례' 대표로 선발되었다. 그에 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ㅂ~ㅇ), 민족문제연구소, 2009, 585-586면 참조.

29) 정순모(春畝 鄭順謨)는 전주 출신으로, 1910년 전주군 주사, 1913년 전주군 서기, 1918년 정읍군 서기, 1928년 전라북도 촉탁 등을 지냈다.

30) 『매일신보』, 1914. 11. 28.

31) 박영철(多山 朴榮喆, 1879~1939)에 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 (ㅂ~ㅇ), 민족문제연구소, 2009, 53-56면 참조.

www.kci.go.kr

지방 관료에 의한 시사 운영은 일제 말기가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1936년 11월 정읍군수 조동민[33]은 '정읍시사'를 설치하고 1년 1회 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장승경(內藏勝景)'이란 제하로 한시를 현상모집하기도 했다.[34] 그 당시에 '호남의 금강산, 내장산 단풍 탐승객 모집' 광고가 도하 신문에 게재될 정도였으니, 시제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시절을 감안하여 적당히 정한 듯하다. 이 경우는 지방 수령이 지역의 유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식민지 정책을 원만하게 집행하는 방안으로 시회를 이용한 사례이다. 그 외에도 전라북도에는 유생이 경비를 자담하여 시회를 열기도 했다.[35]

시회라는 전통적 명칭은 앞의 기령당에서 보듯이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으며, 1926년 유엽(본명 유춘섭)이 조직한 '전주시회'처럼 근대적 문예단체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두루 알다시피, 그는 1921년 3월 김우진 등과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7월에 방학을 맞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조명희 원작 『김영일의 사』의 주인공 김영일 역을 맡아 열연한 바 있다. 또 1923년 11월 시 전문지 『금성』을 창간하고 주재한 인물이다. 그처럼 바쁜 중에도 그

32) 익산음사(益山吟社)의 회원은 혜민원 주사를 지낸 김용태(可石 金溶台), 논산군 주사 백용희(杏亭 白庸熙), 옥구부 주사 이기석(梅軒 李基碩), 익산군 서기 이창규(白嶽山人 李昶珪), 김화형(敬齋 金和炯), 이종태(李鍾台), 박성중(溪峯 朴性重), 이익호(李益晧), 이홍식(止亭 李弘植), 오주천(吳柱天), 허도(竹齋 許翿, 필명 竹齋隱人), 서광훈(徐光勳) 등이었다.

33) 조동민(趙東敏, 1886~?)은 서울 출신으로, 1916년 12월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임용되었다가 부안군수, 옥구군수, 정읍군수, 김제군수 등을 지냈다. 그에 관해서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친일인명사전』(ㅇ~ㅎ), 민족문제연구소, 2009, 540면 참조.

34) 입상자는 1등 변동주(邊東柱), 2등 송갑수(宋甲秀)·이기용(李起容), 3등 박재용(朴齊容)·유남규(柳楠圭)·유연회(柳然澮), 가작 박종래(朴鍾來) 등이었다.(『매일신보』, 1936. 11. 8.)

35) "全州郡 昌德面 柳里에 居ᄒᆞᆫ 柳秉養 氏ᄂᆞᆫ 元來 該郡의 著名한 人士로 學識이 贍富ᄒᆞ고 性質이 純和ᄒᆞ야 好義樂善으로 本旨를 作ᄒᆞ더니 近年 以降으로 一般 士氣의 腐敗홈과 漢學의 退步됨을 慨歎ᄒᆞ야 自家의 饒足치 못한 錢財를 費用ᄒᆞ야 酒肉魚果를 盛備ᄒᆞ고 各郡 士子를 會集ᄒᆞ야 古風詩賦 三體를 試考ᄒᆞ야 優等者에게ᄂᆞᆫ 多數ᄒᆞᆫ 賞品을 授與ᄒᆞ얏ᄂᆞᆫ 고로 一般 士氣가 勃興ᄒᆞ야 同氏의 美行을 人皆稱道ᄒᆞᆫ다더라".(『매일신보』, 1913. 4. 19.)

www.kci.go.kr

는 전주청년회의 집행위원을 맡으며 고향의 청년운동에도 관심을 쏟았다. 그는 전주의 사립신흥학교 후배이자 전주천도교청년회를 조직한 김해강, 전주청년회의 집행위원으로 있던 시인 김창술 등의 문학청년들과 힘을 합쳐 문예강연회를 열었다. 이전에 도쿄 유학생 단체 서조회가 방학 때마다 열었던 계몽강연회와 달리, 전주시회의 강연회는 본격적으로 문예에 초점을 맞추어 열렸다.

> 개회사(崔洛均), 작품 낭독(회원), 인류문화의 진로(金昌述), 음악(유지), 자연주의 문학과 그 본질(尹光中), 작품 낭독(회원), 동요에 대하야(吳昌南), 동요 창가(유지), 생과 표현(柳春燮), 폐회[36]

이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시회가 주최한 문예강연회는 '문예'적 색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시회는 다음 연도에도 열렸다.[37] 비록 원고를 볼 수는 없으나, 동요와 문학 강연에 중점을 둔 것을 쉬 확인할 수 있다. 동요는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 식민지의 전역에 퍼져간 동요운동의 여파로 보인다. 그 시절에 각 지역마다 소년회가 조직되어 동요의 창작과 보급에 힘썼던 사실을 떠올리면, 강연회에서 동요를 중시한 이유가 절로 드러난다. 특히 유엽의 '생과 표현'이라는 제하의 강연은 그의 소신이었던 표현주의 문학관이 형성되어 간 맥락을 엿보게 도와준다.[38] 그가 분망한 중에도 운영한 전주시회는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근대적인 문예강연회로 일관하여 도내에 근대 문학단체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2.2. 근대문예단체의 움직임

대일항쟁기간에 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문예운동은 소인극 운동이었

---

36) 『조선일보』, 1926. 7. 30.
37) 『조선일보』, 1927. 10. 30.
38) 유엽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최명표, 「범애주의자의 시와 시론—유엽」, 『유엽문학전집』 Ⅰ, 신아출판사, 2011, 286-312면 참조.

www.kci.go.kr

다. 소인극은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용어로서 '소인(素人)', 곧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상연한 연극을 가리킨다. 서울과 달리 근대 매체의 도입이 어렵고, 문맹자가 다수를 차지한 지역의 형편은 소인극의 흥행을 담보해 주기에 알맞았다. 소인극이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당국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정의 경비를 조달하기도 했다. 전주소방조합에서는 소방용 우물 16개소를 굴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00원을 마련하고자 1913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전주좌에서 소인연예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기부받았다.[39] 이러한 모습은 강점 기간 동안에 식민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과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신설 등을 수혜자 원칙으로 해결한 조선총독부의 야비한 일면이다.

소인극은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한 전언을 전달하기에 용이하여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찍부터 착목되었다. 그 시절의 문예는 문맹 상태의 민중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일종의 계몽운동이었으므로, 소인극은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변혁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에 어울렸다. 곧, 문예는 부차적인 과제였던 셈이다. 이런 판국을 알고 있던 유식청년들은 읽기로서의 문예물보다는 보여주고 들려주는 문예물로 소인극을 공연하였다.[40] 그들은 청년운동, 소년운동, 야학운동 등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소인극을 활용했다. 비록 그들의 움직임이 문예물의 흥행에 전력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식민지의 곳곳에 문예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펼쳤던 소인극운동은 장차 연극운동의 기반은 물론, 공연을 관람하는 청중들에게 연극(문예)의 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훗날의 문예 독자를 양성하는 밑바탕이었던 점 등은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 소인극운동이 전문 연극인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조선신파개량좌'처럼 수시로 임의단체가 결성되고 출연자가 바뀌는 경우도 속출하였다. 이 단체는 전주친목계가 노동야학의 운영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조직한 연극단체로서, 1921년 12월 1일부터 2일

39) 『매일신보』, 1913. 5. 1.
40) 전라북도의 소인극운동에 관해서는 이원희, 『전북연극사』, 신아출판사, 1997 참조.

www.kci.go.kr

까지 전주좌에서 신파극을 상연하였다.[41] 이로서 소인극이 신파극으로 이행하는 증례로 삼을 수 있다.

소인극운동이 벌어지는 틈에 신파극도 도내 곳곳에서 공연되었다. 부안 줄포에는 1921년 경신청년회에서 신파 문예단체 '경신단(警新團, 단장 許奎煥)'을 부설하여 운영하면서 5월에 3일 동안 공연했다고 한다.[42] 청년회에서 운영한 것이므로 비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터이나, 한적한 고을에 서울에서 유행하는 신파를 상연하려고 힘쓴 점만으로도 단원들의 노력은 가상하다. 전라북도의 서해안에 자리잡은 포구에 불과한 줄포가 문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지리적 환경에 힘입은 바 크다. 줄포는 천혜의 곰소만에 자리하여 예로부터 법성포와 위도를 연결하는 칠산어장의 중심지로 어업이 발달하였다. 또 곰소만은 소금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어업과 제염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어촌이 들어섰고, 다양한 수산물이 포획되자 객주에 의한 유통이 활발하여 상업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였다.[43] 그에 터한 항구의 개방성은 자본의 축적에 따른 유학생의 증가를 가져오고 새로운 문물의 유입을 자극하여 문예운동의 전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리도 전라북도의 교통 요충지로서, 문예 활동이 빨리 일어난 편에 속한다. 1921년 일군의 청년들이 '익산청년연예단'을 조직하였다.[44] 그들은 군내를 순회하며 공연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다. 그런 열기에 힘입어 이리에서는 1926년 7월 21일 연극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동인들이 이리유치원에서 '계명극단'을 설립하고, 8월 15일 '운명의 노래' 등을 제1회 공연작으로 올렸다.[45] 이어서 1932년 8월에는 연극단체 '연양사'가 조직되었

41) 『동아일보』, 1921. 12. 10.
42) 『동아일보』, 1921. 5. 22.
43) 줄포의 지리적 환경에 관해서는 김일기, 「조선시대 곰소만의 수산업과 어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1993, 251-193면 참조.
44) 익산청년연예단은 최길수(崔吉洙), 최익규(崔益圭), 오남철(吳南喆), 유봉기(柳鳳琪), 정규호(丁奎浩), 임원식(林元植), 김종관(金鍾灌) 등이 조직하였다(『동아일보』, 1921. 4. 6.).
45) 계명극단(鷄鳴劇團)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부서별 임원진은 서무부 김향운(金

www.kci.go.kr

다.[46] 익산청년연예단이 청년운동가들이 주동한 임시적 소인극운동단체였다면, 계명극단과 연양사는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전문적 연극단체였다는 점이 다르다. 바야흐로 근대적 성격을 지닌 연극단체가 출범한 셈이다.

군산의 경우에도 사회단체에서 문예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 난 뒤에, 본격적인 문예단체가 뒤따르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군산의 '진남구락부'는 사회단체인데, 문예부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47] 구락부에는 당시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력인사들과 청년들이 대거 참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진남정에서 시작된 시회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계몽단체로 이름과 성격을 바꾸고 지역의 사회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그들의 활약으로 문예단체가 출현할 기반이 구축되어 소인극운동이 먼저 벌어졌다. 1922년 군산 출신 동경 유학생 친목단체 '금우회(錦友會)'는 하기 방학을 맞이하여 소인예술극단 '문예단'을 조직하여 7월 16과 17일에 군산좌에서 공연할 계획이었으나[48], 연기되어 7월 28일과 29일에 걸쳐 군산좌에서 연극 '형광(螢光)', '태양'을 상연하였다.[49]

잇따라 1923년 1월 14일 군산정미조합에서 출범한 '문우회'는 군산 지역에 문예단체의 출발을 알렸다.[50] 회는 기관지 『효광(曉光)』을 창간하고,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원진을 확충하였다.[51] 이어서 군산에는 1926년 1월

香雲)·이룡(李龍)·이춘엽(李春葉), 연구부 고운(高雲)·곽연파(郭蓮波) 등이다.(『동아일보』, 1926. 8. 7.)

46) 연양사(硏揚舍)는 연출 유춘(柳春)·박송하(朴松下), 전무 정중옥(鄭仲玉), 배경 이입강(李入江), 조명 윤일소(尹一笑) 등이 발족시켰다.(『동아일보』, 1932. 10. 8.)

47) 진남구락부(鎭南俱樂部)의 임원진에는 대한제국기에 용안군수 등을 지낸 최우락(崔禹洛), 진안군수와 옥구군수 등을 역임한 서병주徐丙周), 내부 주사를 지낸 김홍두(金洪斗) 등이 포진하였고, 문예부는 부장 최수현(崔壽鉉)과 이사 조평구(趙平九)·석경도(昔敬都)로 구성되었다.(『동아일보』, 1922. 1. 10.)

48) 『동아일보』, 1922. 7. 7.

49) 『동아일보』, 1922. 8. 8.

50) 문우회(文友會)의 임원진은 간사장 정수영(鄭壽榮), 상무 차주상(車周相)·최동길(崔東吉)·이창복(李昌馥) 등이었다.(『동아일보』, 1923. 1. 25.)

51) 당일 선출된 임원진은 편집부 간사 정수영(鄭壽榮)·최동길(崔東吉)·이태원(李泰元), 연구부 간사 김서집(金瑞集)·차재권(車在權)·이창복(李昌馥)·오영태(吳

www.kci.go.kr

‘백주회’가 창립되었다. 당초에 군산미우구락부회관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발기된 회명은 ‘문예회(文藝會)’였다.[52] 그러나 출범 단계에서 회명은 ‘백주회’로 고쳐진 채 14일에 창립되었다.[53] 백주회는 곧바로 1월 23일 문우회(文友會)로 개명하였다.[54] 이로써 그 전에 활동하던 문우회가 무력화되고, 그 이름을 계승한 새로운 단체가 출범한 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군산에서는 계속하여 문예단체의 출범과 잡지 발간이 이어졌다. 그 중의 한 사례로, 1926년 군산의 연극단체 ‘샛별회’는 철필 문예지를 발간하기로 결의하였다.[55]

특히 1927년 3월 창립한 ‘우리예술협회’는 각본부, 흥행부, 문예부, 음악부 등의 부서를 조직하고 종합예술단체를 지향하였다.[56] 회에서는 등사판 회지를 월간으로 발간하여 창작물의 발표 공간으로 활용했다. 회에서는 창립 1주년 기념 대흥행으로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군산좌에서 신극 ‘춘향전’과 희극 ‘허영자의 눈물’을 상연하였다.[57] 그러나 이 회가 3월에 창립되었으므로 8월에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치룬 것은 오보로 보인다. 우리예술협회는 1927년 10월 24일 연악회관에서 음악연구단체 ‘연악회’[58]와 통합

永泰), 사교부 간사 오몽근(吳夢根)·이창복·박상옥(朴尙玉)·정신도(鄭信道), 재무부 간사 차주상(車周相)·최동길 등이었다.(『동아일보』, 1923. 1. 30.)

52) 『동아일보』, 1926. 1. 9.

53) 백주회(白洲會)의 임원진은 회장 서무부장 백남기(白南祺), 간사 배건학(裵建學)·윤영상(尹榮祥), 문예부장 윤은병(尹殷炳), 간사 김황(金榥)·오기영(吳基泳), 극부장 김영희(金永熙), 간사 이영구(李瑛九)·손용주(孫容珠), 회계부장 정창열(鄭昌悅), 간사 이병호(李炳鎬)·신봉삼(辛鳳三), 서기 정두현(丁斗鉉)·진규정(陳圭正) 등이다.(『동아일보』, 1926. 1. 19.)

54) 『동아일보』, 1926. 1. 30.

55) 『동아일보』, 1926. 7. 9.

56) 우리예술협회의 임원은 고문 이재윤(李在潤), 회장 안희진(安熙軫), 총무부 김서집(金瑞集)·김동진(金東眞), 각본부 전제종(全世鐘), 흥행부 김광수(金光壽), 문예부 김준권(金俊權), 음악부 강원형(姜元馨) 등이다.(『중외일보』, 1927. 3. 14.)

57) 『동아일보』, 1927. 8. 9.

58) 연악회(硏樂會)는 1927년 8월 22일 김완동(金完東)의 주도로 창립되었다.(『동아일보』, 1927. 8. 29.) 그에 관해서는 최명표, 「한 민족주의자의 문학적 행정—국권침탈기 김완동의 아동문학론」, 『전북지역아동문학연구』, 청동거울, 2010,

www.kci.go.kr

하고 '연예회'로 이름을 고쳤다.[59] 연예회는 그해 가을에 제1회 공연을 마치고, 1928년 4월 21일과 22일의 양일간에 전조선현상신구독창대회를 주최하였다. 회에서는 제2회 공연작으로 창작 신극과 가극을 상연하려고 준비하였다.[60]

군산의 문예단체 중에서 창립연월일이 미상이나, 상연작과 출연자까지 밝혀질 만큼 활발히 활동한 것은 '백조회'이다. 1929년 11월 제1회 공연작으로 '성당의 종소래', '꼿지는 밤', '날 다려가오', '희생' 등을 상연[61]한 것으로 미루건대, 회는 그 무렵에 조직된 듯하다.[62] 백조회는 1930년 3월에 '희생'을 제외한 3편을 제3회 상연작으로 올렸다.[63] 4편 중에서 '성당의 종소래', '꼿지는 밤', '날 다려가오'의 3편을 주연한 배우는 이정순(李貞順, 1911~?, 여)이다. 그녀는 옥구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부하며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 집행위원[64] 등으로 활약하는 중에 고향의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1932년 서울계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소위 李雲赫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65] 최연방(崔蓮芳, 여)은 '성당의 종소래', '날 다려 가오'에 출연하였고, 최소송(崔小松, 여)과 김야운(金野雲, 여)은 '동정의 눈물'에 출연하였으며, 김호주(金湖舟, 여)는 '희생'의 주연을 맡았다. 등장인물 중에는 이정순처럼 운동권 경력으로 실체가 밝혀진 이도 있으나, 다른 배우들은 예명을 사용한 듯하고 여자 출연자만 이름이 공개된 점이 이채롭다.

82-116면 참조.

59) 연예회(硏藝會)의 임원은 위원장 김영희(金永熙), 부위원장 오기영(吳基泳), 서무 안희진(安熙軫)·차승호(車承鎬), 연예(硏藝)부 김완동(金完東), 연극(硏劇)부 김광수(金光壽), 문예부 왕일봉(王一鳳) 등이었다.(『동아일보』, 1927. 10. 28.)

60) 『중외일보』, 1928. 4. 7.

61) 『중외일보』, 1929. 11. 2.

62) 다 알다시피, 백조회는 1926년 2월 24일 김기진, 이익상, 윤심덕, 김복진 등이 조직한 연극단체이다.(『동아일보』, 1926. 2. 26) 이 회가 결성된 뒤에 식민지의 전역에는 함흥의 백조회(『동아일보』, 1926. 12. 20)처럼 동일한 이름의 연극단체가 생겨났다. 군산의 백조회(白鳥會)도 그런 분위기에서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63) 『중외일보』, 1930. 3. 14.

64) 『중외일보』, 1930. 9. 18.

65) 『매일신보』, 1932. 9. 20.

www.kci.go.kr

위의 단체들이 주로 연극에 치중하였다면, 1926년 출범한 군산의 문예동호인 단체 '신인회(新人會)'는 다양한 문학활동을 선보였다. 회원들은 1927년 3월 28일 박세혁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창립 1주년 기념 문예 간행물의 발간과 서울의 문사를 초빙한 문예강연회의 개최를 결의하였다.[66] 박세혁은 평안도 출신으로 군산에 이주한 뒤로 군산청년회, 군산소년회 등의 지역사회 변혁운동에 종사한 운동가이다. 그가 서점을 경영하면서 운동에 종사한 이력에서 추측 가능하듯이, 신인회는 문예동인회로 위장한 사상단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박세혁은 운동에 복무하는 동안에 여러 장르에 걸쳐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문학 활동에도 열심이었다.[67] 그의 성과물로 미루어 보면, 신인회원들의 문학열은 상당했다고 볼 만하다. 신인회의 뒤로는 '문예회극단(文藝會劇團)'이 알려져 있다. 회는 1936년 군산의 문학청년 20여 명이 조직한 것으로, 5월 8~9일에 군산극장에서 제1회 공연을 행하였다.[68]

1930년대에 이르러 전북 지역에는 소년문예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 운동은 청년들의 지도를 받은 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것으로, 아동문학의 발전을 앞당기면서 문학 시장의 흥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여간하지 않다.[69] 도내에서는 군산과 부안에 살던 소년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군산의 소년문사들은 '새빗사'를 만들고 소년문예운동을 전개하였다.[70] 그들은 칠필 동인지 『신광(新光)』을 발간하면서 '문맹퇴치운동 잡지'를 표방했으나[71], 식민지의 소년들로부터 원고를 모집한 것으로 보아 각 지의 소년

66) 『중외일보』, 1927. 4. 1.
67) 박세혁(朴世赫)의 작품은 최명표 편, 『전북근대문학자료』 2, 신아출판사, 2014, 244-255면에 정리되어 있다.
68) 『동아일보』, 1936. 5. 3.
69) 식민지에서 전개된 소년문예운동의 양상에 관해서는 최명표, 『한국근대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참조.
70) 새빛사 동인은 김창남(金昌南), 유성종(劉成鍾), 박계순(朴桂順), 문점동(文点童), 이순이(李順伊), 유장록(柳長錄), 김북실(金北實), 차준문(車駿汶, 개명 七善) 『어린이』, 1930. 3, 67면. 차준문의 동요작품은 최명표 편, 『전북근대문학자료』 6, 신아출판사, 2014, 270-284면에 정리되어 있다.
71) 『신소년』, 1930. 6., 53면.

www.kci.go.kr

들과 소식을 주고받은 듯하다. 새빗사를 이끈 동인은 군산소년회 총무와 소년문예지 『새벗』 군산지사장 등을 역임한 차준문이었다. 그는 원고의 수집뿐 아니라, 여러 편의 동요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동인 문점동은 『신소년』 옥구지사 총무를 지냈다.[72] 부안에서는 1931년 20여 명의 소년문사들이 모여서 '새글사'를 조직하였다.[73] 두 곳의 소년문사들이 벌였던 문예운동의 흔적은 『별나라』, 『신소년』 등에서 쉬 찾아볼 수 있다. 이 잡지들이 카프의 준기관지에 해당하는 무산소년잡지이므로, 동인들의 사상적 성향을 헤아리기에 충분하다.

3. 결론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근대 문예단체는 전래의 시회로부터 비롯되었다. 시회는 운영 주체에 따라 유생들의 자발적 모임, 지방 수령에 의한 모임, 유생 개인이 주도한 모임 등으로 나뉘었다. 이런 형태는 조선시대로부터 계승되어 오던 것이다. 그 중에서 가운데치는 향반과의 결탁 수단으로 시회를 활용했던 조선조의 수령들과 같이, 지역 유생들과의 돈독한 관계에 터하여 식민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지방 관료들의 음모가 숨어 있다. 시회는 '전주시회'처럼 근대문예단체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어 문학사적 연속성을 살필 만하다.

전라북도의 근대문예운동은 소인극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소인극이 비전문가의 연극이었듯이, 소인극운동은 임의로 조직되고 해체되는 통에 구체적 내용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이 청중들에게 근대 문예의 일면을 소개하여 문예 독자로 전환시키고, 근대문학에 대한 소개에 기여한 공은 실로 크다. 여러 지역에서 소인극이 상연되자, 각 지에 문예단체가 결성되었다.

---

72) 『신소년』, 1930. 5., 56면.

73) 새글사의 주동자는 신영근(辛榮根), 신남근(辛南根), 신석남(辛錫南) 등이었다. (『별나라』, 1931. 1·2, 44면.)

www.kci.go.kr

청년들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소년문사들은 소년문예단체를 출범시키며 문예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들이 보여준 무명의 헌신이야말로 전라북도의 근대문학이 활성화되도록 거든 지반이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필임,『시회의 탄생』, 한길사, 2016.

김일기,「조선시대 곰소만의 수산업과 어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1993, 251-193면.

신은경,「풍류방예술과 풍류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편,『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171-208면.

신익철,『조선의 매화시를 읽다』, 글항아리, 2015.

이원희,『전북연극사』, 신아출판사, 1997.

정 훈,「정읍 피향정 제영시 연구」,『국어문학』52, 국어문학회, 2012, 85-111면.

최명표,「전북 지역 문단의 형성 과정」,『로컬리티인문학』1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0., 47-77면.

최명표,「전북 지역 근대 잡지의 사적 고찰」,『영주어문』30, 영주어문학회, 2015. 6., 119-140면.

최명표,『전북지역아동문학연구』, 청동거울, 2010.

최명표 편,『유엽문학전집』Ⅰ, 신아출판사, 2011.

최명표,『한국근대소년문예운동사』, 도서출판 경진, 2012.

최명표 편,『전북근대문학자료』2, 신아출판사, 2014.

Pierre Bourdieu, 하태환 역,『예술의 규칙—문학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1999.

www.kci.go.kr

【Abstracts】

A Study of Modern Literature Groups in North Jeolla Provincial Region

Choi Myoung-pyo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modern literature groups before their birth and their activities after the birth in North Jeolla provincial region. Originally "sihoe(詩會, poetry party)",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Korean literature group, was a place for Confucian scholars in the region, used to promote friendship and parade their knowledge in Chinese writings. The poetry party in the North Jeolla provincial region started from the noted scholar Choi Chi-won (崔致遠), who was appointed as governor-general in Taesan (currently Taein in South Jeolla Province) during the late Silla Dynasty. During the Joseon Dynasty, poetry parties by Confucian scholars took place all over the country. Poetry parties in the province were divided into voluntary gatherings by local community leaders, gatherings led by local bureaucrats, and gatherings by individuals.

As with "Jeonju Sihoe" led by students who studied in Japan, the term "sihoe" was borrowed as the name of modern literature groups. Siho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modern literature movement in the North Jeolla region by promoting the true nature of modern literature through lectures on literature. More students who studied abroad organized literature groups in other regions and brought about

www.kci.go.kr

modern literary campaigns. They made great efforts to propagate modern literature by providing young men and adolescents in the region with opportunities to relish literature. They were most active in Jeonju, Gunsan, Iri and Julpo. Efforts by literature groups were mostly concentrated on staging amateur theaters or theatricals, but there were also activities to nurture literary knowledge as they organized panel discussions on literary works or publishing journals. Adolescent writers who were stimulated by young men's literary campaigns kick-started their own literary groups to participate in literary campaigns, serving as a foundation of modern literature in the North Jeolla Province.

Key words : sihoe (poetry party), modern literature groups, North Jeolla Province, modern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movement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